

■프로 '나무심는 사람들' 몽골서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나무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지난 11일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중인 몽골 룬숨에서 시베리아산 포플러 나무를 심고 있다.

“메마른 땅에 녹색 희망을 심다”

강기정 의원·광주지역 회원 등 100여명 구슬땀 시베리아산 포플러 800그루 조림... 생태복원 목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25km가량 떨어진 룬숨은 인구 2500여명의 작은 도시다. 한국과 몽골의 그린벨트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곳이다.

지난 11일 국회 연구단체인 '나무심는 사람들'(대표의원 강기정) 소속 국회의원 6명과 20여명의 광주지역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롯데백화점, 산림청 관계자, 몽골 국회의원, 몽골 주민 등 100여명이 나무심기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비가 자주 오지 않아 건조하고 메마른 땅, 광활한 초원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흠뻑 젖어 그득했다.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 위로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었다. 말과 소, 양, 염소떼가 등성등성 자라난 풀을 뜯고 있었지만 흙과 모래가 강한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며 모래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몽골의 아름다운 대초원이 급격한 사막화로 푸름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와 저조한 강수량, 긴 겨울 등은 몽골의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목축과 미숙한 농업기술, 화재 및 해충 예방활동의 부재 등으로 사막화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위치한 몽골의 연평균 강수량은 245mm(세계 연평균 750mm)에 불과하다. 전 국토의 40%가 사막이고, 나머지 국토의 72%가 사막화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30년간 몽골에선 약 887개의 강과 1166개의 호수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는 사막화는 몽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구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이 공적원조(ODA)사업으로 몽골에 나무심기를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이다.

이날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등이 심은 묘목은 시베리아산 포플러 1년생 800그루. 땅이 건조하다보니 나무 심는 방식도 우리와 많이 달랐다. 우리나라에선 나무 밑둥까지 흙을 덮어주지만, 이곳에선 지표면보다 낮게 심었다. 수분 증발을 막고, 초원의 가센 바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양의 변을 성숙시킨 퇴비도 함께 덮었다. 2인 1조로 나뉘어 진행된 나무심기는 척박한 토양 때문에 정성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 건조한 흙은 금세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손으로 한층 한층 정성스럽게 돌아줘야 한다.

산림청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조림을 시작한 지난 2008년 묘목의 활착률은 20%였다고 한다. 지금은 시행착오 끝에 90%까지 높였다.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 호스로 뿌리 근처에만 물을 주는 점적관

수(點灌澆水)기술까지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심은 50cm짜리 포플러나무가 지금은 3m로 훌쩍 컸다. 산림청은 오는 2016년까지 이곳 일대에 3000ha를 조림할 계획이다.

최수철 몽골사막화방지 사업단장은 "나무심기 초기에는 한국 조림기술과 맞지 않아 시들고 죽는 묘목이 다수였다"며 "특히 달라자드가드 지역의 경우 자갈과 염분이 많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착률과 생존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추진한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단순한 나무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막화방지과 생태복원이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과 몽골의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나무를 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르단치백 몽골 국회의원은 "황사와 사막화방지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지만, 이러한 활동은 양국의 작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몽골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한국에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비롯, 김현, 이원욱, 박완주, 김운덕 의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의원과 산림청, 환경재단, 열린의사회 등이 참여했으며, 롯데백화점이 후원했다. 광주에서는 정희근, 조오성, 김영남, 문상필, 서정성 시의원과 광주지역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이 참석했다.

/*몽골 룬숨=최정일기자cki@kwangju.co.kr

빛고을문화관 건립위원장 기금 요구 논란

명성예식장 “30억 기증 거부하자 후보지 반복 나서”

지역문화단체 “철저 조사... 부지선정 재검토 해야”

황하택 빛고을문화관(이하 문화관) 건립 추진위원장이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의 소유자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문화인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문화관 부지 선정과정의 객관성을 상실한 만큼 광주시가 문화관 부지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성예식장측 “30억원 기증 요구”=문화관 건립 후보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성예식장 측이 12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제시 금액을) 60억원 얘기하니까 30억원을 기증해버리시오. 문화상 만들면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회장에게 말했다. 안 된다고 하니깐 안 하러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는 황 위원장의 말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명성예식장 회장의 아들인 김영주 명성예식장 부사장이 최근 황 위원장과 통화할 녹음한 것으로 모두 20여분 분량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회장은 김 부사장의 아버지다.

김 부사장은 “우리 예식장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인 3월 초에 황 추진위원장

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 또 선정된 후인 4월8일 황 건립추진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30억원 기증 얘기를 했다”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이어서 거절했는데 그 뒤부터 2순위 후보지를 지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최근 황 위원장이 후보지를 반복하자는 기고를 일간지에 낸 의도가 궁극이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1순위 후보지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명성예식장 소유자인 김 회장이 나에게 ‘60억원에 (예식장을) 팔고 싶는데 (매매자들) 알아봐 달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시 주변에 물어봤는데 ‘공짜로 줘도 리모델링하느라 돈이 더 든다’는 얘기를 듣고 김회장에게 ‘광주시가 결정하겠지만 노인타운도 좋고, 문화관도 할 수가 있으니 60억이라 하지 말고 30억 받고 30억은 기증해버리시오. (그래서 광주시가) 좋다면 좋고 아니면 안할 것 아니겠소’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월 빛고을문화관 건

립추진위원회를 열어 매입가 60억원을 제시한 명성예식장을 1순위로 뽑았으며 2순위로 하딩크 호텔을, 3순위로 옛 현대극장을 선정했다.

◇문화단체 “광주시 진상규명 나서야”=조진태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시의 분명한 해명과 황 추진위원장의 무조건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해산해야 할 뿐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조사를 하거나 시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13일 고문단과 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작가회의 차원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시민단체와 연대해 빛고을 문화관 부지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창수 광주문인협회(이하 문인협회) 회장은 “당초 부지가 명성으로 결정됐는데 황 위원장이 ‘하딩크 호텔’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져버렸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이대로 진행하면 의혹만 가중시키므로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나아가 특정 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지를 탐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산 친환경쌀’ 서울 학교급식 책임진다

4223개교에 1만3000t 납품... 54% 차지

전남 친환경 쌀이 서울지역 학교급식의 54%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는 12일 “올 전남산 친환경 쌀 1만3000t을 서울지역 4223개교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1800t(318억원)에 비해 1200t, 10% 가량 늘어날 수치이며 금액으로는 347억원에 달한다.

서울 이외에도 경기 5700t(158억원), 광주 3200t(85억원), 전남 6500t(173억원) 등 다른 지역 학교 급식에도 꾸준히 전남 쌀이 공급되고 있다.

전남도는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해 수도권 2000여개 학교를 상대로 전남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익기자 kroh@kwangju.co.kr

“여수박람회장, 세계적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윤진숙 해수부 장관, 박람회 1주년 기념식서 밝혀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이 여수를 찾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1일 여수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 여수박람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여수박람회는 해양과 연안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바다를 통해 인류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바다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 아이টে를 발굴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값진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또 “여수박람회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바다와 연안을 해운·항만·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과 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와 같은 신 해양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의 이พล도록

하했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시찰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봤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10일 광양항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광양시의회는 “해수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부산항-광양항 양항 정책을 포기하고 부산항 중심의 개발을 밝힌 데 대해 현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임택기자 mtl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고영업사원 모집

창사 6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일꾼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아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대상

가. 모집부서 : 광고영업(남 0명, 여 0명)
●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나.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
다. 자격 및 대상
(1)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각종 영업부문 경력자 우대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1 통
나. 자기소개서 1 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부

3.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13. 5. 8(수) ~ 5. 20(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5. 22(수) 개별통보
다. 면 접 : 2013. 5. 24(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5. 27(월)

4.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 220-0514 우. 501-711)

* 우편접수는 2013. 5. 20(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1 광주일보사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소방서 ●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와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공-26호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CAD/CAM	00명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NC M/C	00명	- 학력 : 무관
CNC 방진	0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와이어컷팅	00명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3차원 측정	0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식당/청소	0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 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 통
4) 건강진단서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000@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